

건강 칼럼

팬데믹 이후 어린이 감기와 면역력

지난해 5월 11일 코로나 19 '팬데믹 극복' 선언 이후 6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실로 3년 4개월 만에 마스크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한편, 일상에서 마스크가 멀어지니 그동안 잠잠했던 각종 감기 바이러스들이 가까워졌다. 이는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들의 지속적인 감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어졌고, 전국적인 소아과의 '오픈런 신드롬'을 낳게 되었다.

보통 영아들의 경우 모유 수유가 끝나는 시점부터 감기에 걸리기 시작한다.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는 1년간 계절별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연 6~8회 감염된다.

비로소 일 년이 지나고 면역력을 취득하게 된 아이들은 소아과 내원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3년 4개월의 방역 기간은 영유아들의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획득 상실의 시간이기도 했다. 오래전 과학자들이 성장기에 겪는 감염이 면역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박영준  
숨쉬는한의원 평택점 대표원장

동물실험을 했는데, 생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벽한 무균 환경에서 길러본 것이다. 병원균이 전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으니 건강하게 성장할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무균 환경에서 크게 기른 생쥐를 평범한 사육 환경에 되돌려 놓으면 심각한 감염으로 곧바로 죽어버렸다. 죽은 생쥐를 해부해 보니 림프결과 같은 면역계통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손소독, 마스크, 거리 두기 생활은 분의와 달리 영유아들에게 위 실험의 생쥐와 같은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려"할 때의 '면역력'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

하며 일생 동안 변치 않는 선천적 면역(innate immunity)이 아니라 반복된 병원체의 노출에 현격히 증강된 한 병력을 갖게 되는 획득성 면역(specific acquired immunity)이다. 방역기간 동안 안 걸렸던 감기를 단시간 내에 연속하여 치러내는 모습이다. 무엇이든 순리에 어긋나는 현상에는 큰 부작용이 따르듯 영유아들의 호흡기 건강에 한계가 온 듯하다. 지난해 봄과 여름 폭풍처럼 몰았던 아데노바이러스, 다시 돌아온 수족구와 유행성 이하선염, 지난 9월부터 돌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창궐하는 독감, 4년 주기로 찾아오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이제는 다시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론대로면 획득면역의 기회를 가졌으니 항체를 형성하여 같은 바이러스에 재차 노출될 때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로컬에서 진료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결과를 흔히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독감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한 달 간격으로 같은 독감에 반복하여 걸리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 항체형성과 면역력의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한의학에는 '正氣存內(정기존내), 邪不可干(사불가간)', '邪氣所湊(사기소주), 其氣必虛(기필허)'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몸 안에 정기가 강하면 사기가 침입할 수 없고, 반대로 사기가 들어온 것은 정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아이들이 장기간 집중적인 병치레를 하다 보니 아이들의 정기가 크게 떨어져 항체 취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영유아의 보전을 위하여 상한론과 온병학으로 세밀한 증상관리가 가능하고 정기보존으로 면역력을 제고할 수 있는 치료가 절실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사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실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인 (주)명신은 투자와 고용 등 보조금 지원 조건을 지키지 못해 보조금을 반납했다. 그런데 이번엔 사내 하청 노동자와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해 논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양 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교대 근무를 마치고 (주)명신 군산공장을 나서는 어느 근로자는 500일 가까이 이 문을 드나들고 있다.

그러나 이달 1월 말이면 떠나야 한다. (주)명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인 그는 해고 통보를 지난해 12월 20일경에 받았다. 이런 일은 사내 비정규직 하청업체에 있는 직원들 32명 정도에 이른다.

시간당 9천 원 남짓 최저임금을 받았던 이들에게 한 달치 월급이 위로금으로 제시됐다. 명신 측은 지난해 여름 아산공장 정규직 직원들이 군산 공장으로 배치된 뒤 계약 해

지를 요구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더딘 데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아산공장을 축소하고 인력을 개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먼저 하청 계약직에 칼을 댄 셈이다.

'군산형 일자리' 핵심 기업이 고용 약속을 지키는커녕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은 것이다. 명신은 실제 군산형 일자리 고용의 80% 가까이를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나 2022년 채용 계획 2백명 가운데 60명, 지난해엔 5백명을 계획했다가 39명 고용하는데 그쳤다.

투자자 고용 확대를 조건으로 미리 받았던 보조금 87억 원도 반납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었다. 대량 집단 해고가 발생한 것은 지역의 노동 현장에는 엄청난 큰 충격이다. 명신은 이번 계약 해지가 정규직의 업무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노인교실 인기 강의

요즘 'AI' 교육이 노인교실 인기 강의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업 대기 인원이 생기는 등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생성형 AI가 일상 적용이 쉽고 대화 가능해 고령층에 큰 효용이 되기 때문이다.

키오스크서 영상편집과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교육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국내 어느 지자체에서 열리고 있는 '스마트 인공지능(AI) 학교'에서는 어르신들이 생성형 AI 튜터(Wrtm) 활용법을 배우고 있다.

이들은 "여덟 살 아이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카드에 넣을 그림 그려줘."라고 명령을 입력하자마자 사진 4장이 떴다.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아이 모습이나 카드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려 넣는 장면 등이 담겼다.

"조금 더 화사하게 해줄래?"라고 수정을 요구한 명령어에 따라 새로운 사진이 나온다.

이곳의 '스마트 인공지능(AI) 학교' 수업 교재는 생성형 AI인 '튜터(Wrtm) 4.0'이다.

음식 레시피, 여행 계획 등을 요구하는 명령에도 척척 답을 내왔다. 생성형 AI의 개념과 활용법, 주의사항 등 이론뿐 아니라 글쓰기·동영상 만들기 등 실습까지 가능해 배운 것을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에 집중됐던 어르신 디지털 교육은 영상 편집과 AI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디지털 약자로 불리는 고령층이 시대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술을 비슷한 연령대의 강사가 교육하는 수업도 많아졌다. 생성형 AI는 모르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대화 상대가 돼 줄 수 있어 고령층에게 효용성이 더 크다.

인생 2모작, 3모작을 구상할 때 AI 기술은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마크롱 "경기 부양 위해 자유주의 개혁 나설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자유주의 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 단결을 촉구하고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희생 어린이 사진 들고 항의하는 이라크 사람들



16일(현지시간) 이라크 이르빌에 있는 UN 사무소 앞에서 이라크 사람들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어린이 사진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